

세계 랭킹 304위  
체중 빠지는 라임병 투병  
2부 투어 뛰며 캐디 맡기도

# 무명 포포프의 '메이저 반란'

"주일에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할 일이 일어났네요."

24일 스코틀랜드의 로열 트론GC. 여자골프 메이저대회 사상 최대 이벤트를 일으킨 조피아 포포프(28·독일·사진)가 차오르는 눈물을 흘려냈다. 대회 직전 세계랭킹 304위. 우승은 자신조차 상상하지 않았던 터였다. 포포프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AIG여자오픈(총상금 450만달러)에서 당당히 정상에 올랐다. AIG여자오픈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 그는 역대 최고난도 코스로 꼽힌 로열 트론GC(파71·6649야드)에서 혼자 7언더파 277타를 쳐 최강의 경쟁자를 모두 제압했다. 코스에서 정상적인 경기를 한 선수는 사실상 그가 유일했다.

◆동네 투어 떠돌던 '무명'의 반란  
포포프는 2006년 여자골프 세계랭킹이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순위 선수의 '메이저 반란'이란 역사를 썼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 KPMG여자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하나 그린(24·호주)의 114위였다. 독일 선수의 메이저 대회 우승도 그가 처음이다.

포포프의 인생은 굴곡으로 가득했다. 데뷔 해인 2015년 투어카드를 지키지 못하고 이듬해 2부 투어로 내려갔다. 이후 준우승만 네 번 했다. 원인 모를 이유로 몸무게가 11kg 이상 빠지는 불운까지 그를 괴롭혔다.

포포프는 "당시 병원을 스무 곳이나



포포프는 2006년 여자골프 세계랭킹이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순위 선수의 '메이저 반란'이란 역사를 썼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 KPMG여자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하나 그린(24·호주)의 114위였다. 독일 선수의 메이저 대회 우승도 그가 처음이다.

돌아다녔다"며 "3년이 지나서야 겨우 라임병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지금도 관리 중"이라고 했다. 라임병은 진드기가 옮기는 '보렐리아균'이 원인. 악화하면 혈액을 타고 다른 부위에 퍼져 심장 질환, 신경계 이상을 일으킨다.

2018년엔 조건부 출전권을 얻었으나 바로 잃었다. 시드전에선 1타 차로 떨어졌다. 앞선 데 댈턴 격으로 코로나19로

AIG여자오픈 7언더 우승

결원으로 마라톤클래식 참가  
9위에 올라 출전 자격 획득  
"생각 못한 우승 ... 달 위 걷는 기분"

'여제' 박인비, 1언더 단독 4위

투어가 중단되자 1부 선수들의 올세 시즌이 내내까지 인정됐다. 꿈쩍없이 2021년까지 무명 생활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동네 대회'로 불리는 미니투어에 나가 세 번 우승하며 감각을 익혔지만 정규 대회 출전 기회는 좀처럼 다가오지 않았다. 지난 7월 말에는 동료인 아너판담(25·네덜란드)의 캐디로 나서기도 했다. 포포프는 "캐디의 시각에서 코스를 바라보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그를 절망케 했던 코로나19는 역설이 됐다. 이달 초 열린 마라톤클래식에 많은

시드권자가 불참하자 그에 가까지 출전 기회가 돌아간 것이다. 최종 성적 9위에 올라 이번 대회 출전권까지 극적으로 손에 쥐었다. 단독 선두로 3라운드를 마친 그는 SNS를 차단하고 휴대폰을 비행기탑승 모드로 바꾸는 등 모든 것을 쏟

아부였다. 대가는 달콤했다. 그는 내년 출전권과 상금 67만5000달러(약 8억 원)를 쟁겼다. 그동안 LPGA 투어에서 벌어들인 10만8051달러의 약 여섯 배에 달하는 액수다. 포포프의 캐디백을 맨 남자친구 막시밀리안 멜리스는 "믿겨지지 않는다. 달 위를 걷는 기분"이라며 기뻐했다.

◆뒷심 발휘한 골퍼여제  
'골프 여제' 박인비(32)는 1언더파 단독 4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이다. 그는 첫날 6오버파로 부진하며 공동 88위로 출발했다. 그러나 2-3라운드에서 7타를 줄이는 저력을 보여주며 이번 대회 언더파를 기록한 네 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종 라운드에선 5언더파를 기록해 엘리 맥도널드와 함께 '데일리 베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박인비는 "첫날 빼고 둘째 날부터는 전체적으로 좋았다"며 "마지막 날에 버디 맛을 많이 봐서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 캐디로 나선 남편 남기협 씨에 대해선 "힘든 컨디션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호주 동포 이민지(24)가 3언더파 3위, 최종일 2타를 줄인 전인지(26)가 2오버파 공동 7위에 올라 2개 대회 연속 '톱 10'을 달성했다.

조화현 기자 etwoods@hankyung.com

# 장타에 정교함까지 ... 완벽한 샷 더스틴 존슨, 11타차 압도적 승리

노던 트러스트 30언더 우승  
1년3개월 만에 랭킹 1위 복귀

'황제 위엄' 보인 우즈 공동 58위  
이경훈 10언더파 공동 29위

'장타가 정교함과 일관성을 만났을 때'  
'월조 장타왕' 더스틴 존슨(미국·사진)이 엄청난 화력을 뽐내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노던 트러스트를 제패했다. 2위를 11타 차로 따돌린 '압도적' 우승이다.

존슨은 24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던의 TPC 보스턴(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6개를 몰아쳐 8언더파 63타를 쳤다. 1라운드에서 4언더파로 에어를 마친 그는 2라운드에서 11언더파를 몰아치며 폭발하기 시작하더니, 3라운드와 4라운드에서도 각각 7언더파, 8언더파를 추가해 경쟁자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4라운드 최종 합계는 30언더파 254타. 존슨은 2위 해리스 잉글리시(미국·19언더파)를 무려 11타 차로 밀어내고 대회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존슨은 2011년, 2017년에도 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시즌 2승, 통산 22승째다.

우승 성적인 30언더파 254타는 어니 엘스(남아프리카공화국)가 2003년 메르세데스 챔피언십에서 세운 PGA 투어 역대 최다 언더파(31언더파) 우승에 1타 모자란 성적이다.

17만달러의 우승 상금을 챙긴 존슨은 2019년 5월 브룩스 켈카(미국)에게 내렸던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1년3개월 만에 되찾았다. 또 페덱스 컵 랭킹 1위로 2차전에 진출해 1500만달러의 보너스 우승 상금이 걸린 플레이오프 3차전 최종 우승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에서는 이번 대회에선 커트 탈락했지만 시즌 내내 포인트를 꾸준히 쌓은 임성재(22)와 안병훈(29) 두 명만이 진출 레이오프 2차전 김승진 기자 soonjin2@hankyung.com

치르는 1차전(노던 트러스트), 70명이 출전하는 2차전(BMW 챔피언십), 30명이 겨루는 3차전(투어 챔피언십)으로 진행된다. 1차전과 2차전에는 각각 950만달러의 상금이 있지만 30명만이 진출하는 최종 3차전에는 별도 상금 없이 4500만달러의 보너스 상금만 걸려 있다. 1차전과 2차전에서 일찍잡지 탈락한 이들도 최종 플레이오프 성적 상금과 함께 1500만달러의 페덱스 보너스를 성적순으로 나눠 갖는다.

존슨은 마치 혼자서 다른 코스에서 경기하는 듯했다. 나흘간 이글을 5개나 잡아냈고, 보기는 딱 3개만 내렸다. 특히 멀리 치고도 정확하게 쳤다. 드라이버 샷을 최장 348야드 날렸지만 정확도(67.86%)도 공동 29위로 나쁘지 않았다. 그린 적중률은 더 좋았다. 4라운드에서 100%를 달성하는 등 나흘간 90.28%로 전체 1위에 올랐다. 샷을 홀에 붙인 거리인 '프록시미티(proximity)' 순위에서도 1위(28피트 약 8.5m)를 꿰찼다.

3라운드까지 특별함을 보여주지 못한 타이거 우즈(미국)는 마지막 날 '황제의 위엄'을 드러냈다. 버디 6개, 보기 1개로 5언더파를 쳤다. 최종 합계 6언더파 공동 58위. 우즈는 이날 첫 홀부터 네 번째 홀까지 연속 버디를 잡아내는 등 샷감과 퍼트감이 전성기 때를 방불케 했다. 드라이버 타샷 14개 중 10개를 페어웨이에 안착(정확도 71.43%)시켰고, 그린 공략도 18개 중 16개를 성공시켜 88.89%라는 높은 적중률을 과시했다.

1언더파 70타를 친 이경훈(29)이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인 공동 29위(10언더파)에 올랐다. 김시우(25)는 2타를 잃어 공동 39위(9언더파)로 순위가 떨어졌다. 2차전 BMW 챔피언십에서는 이번 대회에선 커트 탈락했지만 시즌 내내 포인트를 꾸준히 쌓은 임성재(22)와 안병훈(29) 두 명만이 진출 레이오프 2차전 김승진 기자 soonjin2@hankyung.com



soonsin2@hankyung.com



유럽 챔피언십리그 정상 ... 뮌헨, 7년 만에 '트레블'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이 2012-2013시즌 이후 7년 만에 유럽 최고 자리를 되찾았다. 뮌헨은 24일 포르투갈 리스본의 이스타두 다 루스에서 열린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십리그(UCL) 결승전에서 잉글랜드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를 1-0으로 꺾고 '빅이벤트'를 만들어냈다. 앞서 분데스리가, 독일축구협회(DFB) 포칼을 제패한 뮌헨은 이번 우승으로 7년 만에 '트레블(3관왕)'을 달성했다. 두 차례 트레블을 이룬 건 뮌헨과 바르셀로나(2009년, 2015년 스페인)뿐이다. 뮌헨 선수들이 우승을 확정지은 후 열광적인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로터 연방뉴스

# PXG, 소비자들과 '골프의류 분쟁'

골프카페

물빠짐 현상 불만 제기하자  
구입일 바꿔 조정 신청 논란

아마추어 골퍼 김모씨는 지난해 3월 프리미엄 골프 브랜드 PXG어퍼럴의 바람막이를 샀다. 가격은 49만9000원. 하지만 열 번 정도 입을 안에서 색상이 흐려지는 '물 빠짐' 현상이 발생했다.

김씨는 지난 5월 PXG 측에 사후 서비스를 요구했지만, PXG로부터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심의를 맡기겠다는 답을 받았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가리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의견서의 구입일만에 2019년 3월 대신 2018년 10월이 적혀 있었다. 김씨는 "구입일이 잘못됐다"며 PXG 측에 정정을 요구했다. PXG는 "(영수증이 없어) 구입일을 파악하기 힘들어 출고일 기준으로 심의를 맡겼다"며 "이후 소비자가 구매일을 고지했고 재심을 신청했지만 소비자 과실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골퍼들 사이에 '핫템'으로 인기를 끌던 PXG어퍼럴(로제나인)이 이번엔 소비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 고객은 '피해 소비자 모임'을 구성해 제품하자를 놓고 집단 대응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하자 관련 분쟁이 생기면 심의 신청 때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날을 기입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사용 기간에 따라 책임 소재를 따질 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PXG 논리대로라면 어제 산 옷도 심의 땀 2년 전 옷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고가 옷에서 물이 빠지는 것도 기가 막힌데, 골수를 써서 책임을 소비자에게 미루려는 PXG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여성소비자연합은 '착용과 취급 보관 시 수분, 생활 가스, 일광 등에 의한 탈변색으로 사용자 책임'이라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김씨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비자를 '블랙 컨슈머'로 몰아가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화현 기자 etwoods@hankyung.com

# '데이터 기반 서비스' 우수스포츠기업 휩쓸었다



모바일 실시간 스포츠 정보서비스 '사이넷', 스포츠 데이터기업 '핏투게더' 등 10개사가 '2020 우수스포츠

문체부 주최·한경후원 우수스포츠기업, 10곳 선정  
모바일 실시간 정보 '사이넷' 스포츠 데이터분석 '핏투게더'

기업'으로 선정됐다.

2020 우수스포츠기업 심사위원회는 24일 "국내 스포츠산업 관련 강소기업 5개, 스타트업 5개 등 10개 회사를 우수스포츠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0 우수스포츠기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다. 이번 심사는 스포츠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10개 기업은 이시장 명의의 상패와 인증마크(사진)를 받는다. 또 선정 기업 중 신청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상 후보로 추천된다.

강소기업 부문에선 사이넷(모바일 스포츠 정보 서비스), 렉스코(피트니스 기

기), 에스빌드(풋살장 운영 및 제품 개발), 위피크(스포츠 교육 네트워크 서비스), 알디텍(골프 및 스포츠 관련 제품) 등 다섯 곳이 우수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스타트업 분야에선 핏투게더(경기 중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 추출, 디바이스 생산), 큐엠아이티(스포츠과학 기반 부상 예방 데이터 플랫폼), 위퍼테크놀로지(과학소재기술 활용 제품 생산), 피트(운동 검사 알고리즘), 스미스스포츠(스포츠디자인) 등 다섯 곳이 선정됐다.

그동안 스포츠산업 분야는 '하드웨어' 위주 기업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2020 우수스포츠기업 공모에선 온라인과 디지털 기술 기반 기업이 대거 뿔뿔이 스포츠산업의 달라진 흐름을 대변했다. 강소기

## 2020 올해의 우수 스포츠기업

강소기업분야	
회사명	사업내용
사이넷	모바일 실시간 스포츠정보 서비스
렉스코	피트니스 기기 생산
에스빌드	풋살장 운영 및 제품 개발
위피크	스포츠 교육,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 기업
알디텍	골프 및 스포츠 관련 제품 생산
스타트업 분야	
핏투게더	스포츠경기 데이터 수집 디바이스
큐엠아이티	스포츠과학기반 부상 예방 데이터 플랫폼
위퍼테크놀로지	과학소재기술 활용형 양말 개발
피트	운동검사 알고리즘 및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스미스스포츠	스포츠디자인 전문기업

업에 든 위피크의 경우 '스포츠몬스터'로 스타트업에 입점해 회계를 모았던 기업이다. 350만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넷은 스포츠 마니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스타트업 부문에선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이 강세였다. 큐엠아이티의 경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마추어는 물론 프로 선수들의 부상을 예방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해 급성장했다. 현재 다수의 프로구단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경기 중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주는 핏투게더는 지난해 충남 천안시축구단과 계약을 맺는 등 업계에서 '라이징스타'로 불린다. 알고리즘을 통해 피트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피트' 등도 가능성을 인정받아 우수스포츠기업 스타트업으로 선정됐다.

이성철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장은 "스포츠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술융복합형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실감형 스포츠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등 혁신 성장 기술 보유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단 연계 사업 참여 기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화현 기자 etwoods@hankyung.com

LA에인절스 트라우트 '야구 카드' 스포츠카드 최고가 47억에 낙찰

현 메이저리그 최고 선수로 꼽히는 마이크 트라우트(29·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의 야구카드가 스포츠카드 역대 최고경매가 신기록을 세웠다. 로이터통신은 24일 글던 옥션 경매에 나온 트라우트의 야구 카드가 스포츠카

드 경매 역사상 최고가인 393만6000달러(약 47억원)에 낙찰됐다고 전했다. 종전 최고액은 2016년 312만달러에 거래된 '1909년 호너스와그너 카드'였다.

이번에 낙찰된 카드는 트라우트가 루키 시절이던 2009년 제작됐다. 그의 자필 사인도 담겨 있다. 골든 옥션은 지난달 100만달러에 경매를 시작했다. 400만달러에 육박해서야 새 주인을 찾았다.

조화현 기자 etwoods@hankyung.com